

건축형태구성에 있어 보편성 원리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and formal principle of universalism in Architectural Composition

이승우* / Lee, Seu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and formal principle of universalism in Architectural Composition. Theoretical category is to find universal system with the connection between idea of society and tradition in compositional fra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it is the pursuit of divine. Through Middle Age and Renaissance, universalism of principles in Architectural Composition is appeared a numerical order and human proportion with applying of cosmology. Second, it is the pursuit of schema. With the simplicity of formal image, it represented to the geometrical form for its clearness. Third, it is the pursuit of typology. As to play a role of decisive factor in formal construction, type represented the model with abstraction of shape.

키워드 : 보편성, 신성화, 도상화, 유형학

1. 서론

건축형태는 인식상의 본원적인 매체이며, 구성은 실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한다. 형태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건축 구성은 그 자체가 가지게 될 내적 혹은 외적 원리에 의해 요소를 질서화하는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구성상의 원리는 복잡성 또는 단순성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화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아야 하며, 건축물의 구성인자인 전체-부분-요소라는 카테고리로서 어떠한 질서체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형태구성 원리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구성상의 보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형태에서의 어떤 형식 구조를 가지며, 어떤 원리로 질서를 내재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여기에 건축형태상의 표현 특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건축형태 구성원리는 특히 그 시대정신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론적 범주는 사회적 이념과 전통과 연결고리에서 보편성이라는 구성체계를 연구하였고, 건축 이론가들의 저서와 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표현 특성에 관한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건축형태구성의 보편성 개념

보편성(universalism)¹⁾의 어원은 '모든 것'을 뜻하는 univarsus에서 유래한 universalis이다. 일상적인 철학의 의미로는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의미로서, 어떤 진체에 대한 유효한 명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원리나 법칙의 보편성은 추론과 경험으로부터 연역된다. 예술이론의 미에 대한 보편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계로서 일반적이거나 혹은 전체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이념을 초월한 범우주적 적용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에서의 추상적 보편성보다는 헤겔에 의한 이성론 역사 속에서 완성되며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편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보편은 특수성을 초월해 나아감으로써 그 자체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 된다.²⁾ 이러한 보편적 준칙은 첫 번째로 고대 이래로 우주론적이고 신적인 사고, 종교적인 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표현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체계는 건축의 사회적 이념 하에 전통과의 연결고리에서 보편성이라는 형태구성체계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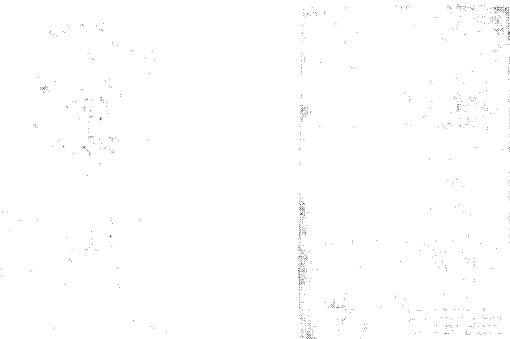
1)신학에서 만인은 결국 구제된다는 설을 가지고 있으며, 칸트에서는 도덕 법칙의 관념 자체는 보편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고,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준칙이 되도록 행위 하라'고 하였다.

2)Clement, Elisabeth의 3, 철학사전, 이정우역, 도서출판 동녘, 1996, p.132.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러한 신성화의 추구는 일원적인 사고체계 하에서 형태구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세시기에 성 빅토르의 휴(1096-1141)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그 미가 여러 가지 사물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고 할 수 있다.”³⁾ 여기서 아름다운 미라는 것은 물론 유일한 신 혹은 신에서 유래하는 미로서, 중세의 신학적 혹은 보편적 미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또한 순수함과 절대적 신에 대한 신성함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건축형태를 생성하는 준거 틀을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입장에서의 일차적이고 자연적인 미의 근원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이러한 신화적 보편은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고전적 규범의 절대적 가치가 상실되고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개념에 의해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다른 관점에서 고프리치(E. H. Gombrich)는 고딕시기의 건축가 빌라르 드 오느쿠르(Villard de Honnecourt)가 그린 앨범 중에는 딱딱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자 정면상의 예<그림 1>와 빌라르의 설명문안⁴⁾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장식이나 문장(紋章)같은 형태로서 실제의 사자로부터 도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현방식의 기초 정도는 숙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앨범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쉼마를 새로 구성해 보겠다는 자유로운 창의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중세이후 빌라르는 예술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편”과 “특수”의 철학적 구분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표현으로서 사람, 양, 사냥개, 사자 같은 보통물체가 바로 보편적인 것, 즉 개념을 가리킨



<그림 1> Villard de Honnecourt, 사자와 호저(豪猪), 1235년경.

<그림 2> Villard de Honnecourt, 드로잉 요소, 1235년경

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상(schema)” 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에 속한다.<그림 2>⁵⁾ 이것이 보편성의 원리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인 도상화의 추구이다.

이러한 도상화의 추구에 있어서 중세시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술적 숙련을 말해 주는 확고한 선적인 묘사이며, 단순 기하학적 입체의 보편적 적용이었다. 그래서 플라톤에서 (특수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감각적 사물들이 나누어 가지는) 형상들, 영원한 본질의 세계는 참된 인식의 가능성 자체를 위해 제시된다. 또한 이 원리는 근대건축의 국제주의적 사고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건축형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화를 추구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형태구성은 단순한 형상에 대한 관심이며, 파괴된 잔재를 복구하기 위한 전세계의 보편적 건축의 적용을 추구하였다.

보편성 원리의 세 번째 특징은 유형학적 탐구에 있다. 건축 사고와 형태구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편적인 것을 재현하는 형식으로서의 유형 개념이 건축가의 표현 방법과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의 창조적 원리는 전통과 동일시되는 일정한 용납된 개념, 질서체계라는 규범의 생존에 몰두하였다. 역사적 전례에서 형태적 공통분모 즉 자신들이 올바른 구성으로서 인식한 속성을 추출해내려고 하였다.⁶⁾

건축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선험적인 실체로 파악한 쿤시는 유형을 기원이론(origin theory)과 연관시켰고, 건축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의 발전에서 단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식하였다. 그의 유명한 저서들에서 그는 유형을 원초적인 것과 성숙된 형태 사이의 발전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가 자기-의식적인(self-conscious) 창조물의 작용(act)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⁷⁾ 따라서 그는 유형을 형태구성을 위한 논리체계 뿐만 아니라 건축적 본질의 변형체계로서 구조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건축구성체계의 내재적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성의 세가지 원리는 건축형태에 있어서 창조적 사고의 원천으로서, 전체와 부분간의 구성체계와 표현원리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그리고 요소들의 표현수단으로서 그 가감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형성되고 있다.

3. 건축형태구성에 있어 보편성 원리와 특성분석

3.1. 신성화의 추구

보편성의 원리로서 신성화의 추구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디자인 이론에서 특히 강조되는데, 중세의 건축가들은 교회나 특수한 기능의 건축물이 신성화가 지시하는 규칙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3) Hugh of St. Victor, Expositio in hierarchiam coelestem, 卍 1: 充夫, 건축미론, 임영배의 1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51. 재인용
 4) Et scacies bien, qu'il fu contrefais al vif. 이 그림은 실물에서 얻어낸 것임을 알아달라.
 5) 중세시기에 상형문자 또는 그림글자와 같은 기능을 했던 도상은 사물의 본질을 결정하는 구조, 기본 골격, 뼈대 등의 개념에서 무한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상의 반영이 필요하였다. 중세에 있어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구별은 주로 논리상의 문제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사고는 르네상스 시

기에도 계속되는데, 에르하르트 쉰(Erhard Schön)이나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등에 의해서도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탐구를 위해서 결부되어진다. Gombrich, E. H., 예술과 환영(Art and Illusion), 백기수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pp.122-123, 228-235.
 6) Rowe, Colin, 근대건축론집(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윤재희 외 1역, 세진사, 1992, p.73.
 7) Lavin, Sylvia, Quatremère de Quincy and the Invention of a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2, p.88.

믿고 있었다. 중세에 있어서는 신을 '우주의 건축가'로 생각하였으며, 인간은 그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였다. 따라서 건축설계의 보편적인 규칙은 작품과 신성화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신성화는 그 건축물이 '표준에 의한' 것이거나 신성한 전형에 따른 것이면 그것은 '진실'하고,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론가들의 저술 속에 명백히 논증되는데, 뢰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의 저술에서 하나의 중요한 가설은 신성 모델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의 개념으로서 '수와 치수와 무게'로 구성되는 율동적인 질서를 가진, 표준에 맞는 간격에 배분된, 요소의 조직이라는 순수한 관계로 되어있다.⁸⁾

신성화의 전개와 진리와 조화의 완전성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중세의 미학적 측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출발하여 샤르트르(Chartres)학교와 가장 위대한 수학적 권위를 위해 보에티우스(Boethius)는 기하학적 표현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선 혹은 면에 대한 비례의 교의(doctrine)와 입방체의 기하학적 조화를 발견하였고, 음악의 음계적 조화와 관련시켜 옥타브, 제 5 음, 제 4 음 등의 비율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네오 플라톤주의자들은 티마에우스(Timaeus)와 함께 우주의 확고한 안정성은 완벽한 비례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성기중세시기(High Middle Ages)가 응용기하학(applied geometry)으로서 정의되고 실행되는 건축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⁹⁾

이같은 기하학을 향한 의지는 이 시기에 빌라르 오노쿠르(Villard de Honnecourt)의 수도원의 평면 형태에 대한 진실한 규범에 따르기 위해 2등분한 정방형의 적용에 대한 요구와 구성에 있어서의 삼각형법과 사각형법을 모두 받아들였다. 마티아스 로리처(Mathias Roriczer)는 15세기 말경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건축가의 형태 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진실한 캐논(canon)에 따른 단 하나의 정방형의 사용에 기초를 두고 전개시켰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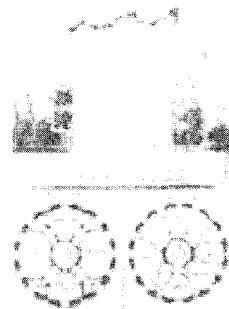
<그림 3> Mathias Roriczer, 올바른 침탑의 설계법, 1486.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해서 건축가는 영원한 전형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것은 그가 신성화의 구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연구에 몰두한 것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신이 자신의 은총을 베풀고, 자신을 더 분명히 계시할 곳은 이 사랑스럽고,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의 모습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모습이 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기준과 명칭이 인체로부터 나왔고, 신이 자연의 가장 깊은 신비를 드러내는 모든 비율과 균형이 인체 내에서 발견된다'¹⁰⁾고

8) Tzonis, Alexander, 건축적 사고의 구조(Toward a New Oppressive Environment), 이강현역, 태림문화사, 1993, p.17.
9) Simson, Otto von, The Gothic Cathedral: Origins of Gothic Architecture & the Medieval Concept of Order, Princeton Univ. Press, 1988, p.33.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비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인체의 비례를 통한 보편타당성은 미적 표상능력에 뛰어난 건축가의 안목이었고, 따라서 인체의 건축적 균형과 건축의 신인동형동성설적인 활력을 표시하기 위해 인체 비례와 건물의 비례를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체 연구의 방향도 기본적인 중세 디자인의 이론적 근거를 벗어나지 않았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이상적 논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체의 연구는 건물의 부분형태와 새로운 유형의 건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디자인의 결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 집중식 교회가 출현한 요인의 하나도 인체의 연구였다. 이러한 집중식 교회는 또한 원형과 정방형의 완전한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로 나타났고,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1715년에 캠벨(Colen Campbell)은 교회의 형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평면은 중앙에 정방형과 원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형이다.'¹¹⁾ 플로(John Plaw)는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의 거



<그림 4> Demonville, House, Marly, 1771.

대한 아일랜드(Island) 주택의 평면에서 대단히 위치한 중심성을 가진 원형형상을 예시하고 있다. 좀더 적극적인 예시는 1771년에 예술애호가(dilettante) 데몬빌(Racine Demonville)에 의한 끊어진 기둥처럼 생긴 말리(Marly) 근처 데제르(Le Désert) 정원에 있는 그의 컨트리 하우스(country house)¹²⁾에서 나타난다.<그림 4>¹³⁾ 세계 축이 하늘을 받쳐 주는 기둥의 형태로 여기는 우주론적 이미지이다.¹⁴⁾ 이것의 형상적 특성은 바로 형태의 명료화로서 르네상스 시기의 미적 통일성을 전제로 한 절대적 명료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완벽한 통일성에 대한 추구는 알베르티의 미에 대한 정의, 즉 '미는 무엇을 제거하거나 부가하거나 변경하기만 해도 전체적 비례와 조합에 의한 통합된 모든 부분의 조화가 깨지고 마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¹⁵⁾는 정의는 르네상스 양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

10) Luca Pacioli, Divina Proportione, Wittkower, Rudolf, 르네상스건축의 원리(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이대암역, 대우출판사, 1997.
11) Colen Campbell, Vitruvius Britannicus, London, 1715. Tzonis, Alexander, 건축적 사고의 구조(Toward a New Oppressive Environment), 이강현역, 태림문화사, 1993, p.22. 재인용
12) 16세기 이후의 영국에서 유행하고 유풍한 귀족이라든지 상류계급의 인종이 시골에 있는 자기의 영지에 세운 대저택이 컨트리 하우스이다. 이것은 장원주택(manor house)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대저택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적인 문화도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컨트리 하우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3) Kaufmann, E.,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lishers, 1955, p.64, 176.
14) Eliade, M., 상징, 신성, 예술(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역, 서광사, 1991, pp.195-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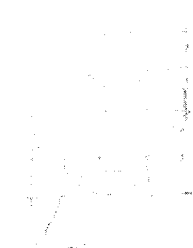
용된다. 이러한 고전적 통일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의 시각적 명료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명료성은 정지한 형태의 묘사로서, 중세 이후부터 강조된 수직 전통에 의한 신념을 보편적 원리로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의 연속성은 알베르티에서 이어진 브롱델의 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이것이 그의 제자인 브리쥬(Charles-Etienne Briseux)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세 시기의 수직 체계에 의한 통일성과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의 신체의 비례를 건축적 완결성을 위한 한 모형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사고는 건축을 보편적 원리 하에 구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신성화의 추구는 형태의 명료화를 위한 수직 체계나 인체 비례를 통한 형태의 완벽한 균제와 함께 부분에서 전체로서의 통일체를 형성하며, 이러한 사고 하에서 건축형태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고전적 정면성과 객관성의 추구이다.

3.2. 도상화(Schema)의 추구

먼저 보편성의 원리로서 도상화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상(Schema)의 어원은 '형식', '형태'를 뜻하는 그리스어 schēma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단순화된 추상적 이미지를 뜻한다. 즉 우리는 'schema'를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판에 박힌) 반응, 즉 전형적인 태도 혹은 의도적인 극들의 특징적인 일관성 체계로서 정의한다. 슬츠는 도상적 관계는 그것이 관련 있는 중간 대상들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¹⁶⁾

이러한 신념 하에 이미지 자체의 단순화는 우선 단순 기하학적 형상을 띤 건축물을 추구하게 되고, 위의 신성화의 추구와 마찬가지로 단일적 통일성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라임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하학적 그리드와 빌라르의 인체부분 중의



<그림 5> Villard de Honnecourt, 머리의 기하학적 구조



<그림 6> 예수의 머리, Reims Cathedral, 1211.

하나인 머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파놉스키(Erwin Panofsky)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그림 5, 6>¹⁷⁾ 이와 함께 빌라

15) Alberti, Leon Battista,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Joseph Rykwert의 2 translated, The MIT press, 1989, 6서 2장, p.156.
 16) 성당은 그 시대의 결정적인 상위의 대상들을 나타내는 매우 복잡한 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Schultz, C. Norberg, *건축론(Intentions in Architecture)*, 정영수역, 세진사, 1992, p.245.
 17) Panofsky, Erwin, *Meaning in the Visual Arts: The History of the Theory of Human Proportions as a Reflection of the History of Styles*, The Overlook Press, 1974, pp.83-87.

르의 이러한 기하학적 도상의 건축에 대한 적용은 게이트하우스(Gatehouse)¹⁸⁾의 지붕부와 시토수도회(Cistercian)교회에서 발견된다 <그림 7>. 그 교회의 비명(inscription)에서는 “여기는 시토회의 질서(Cistercian Order)를 위한 디자인으로 세로축의 교회이다”라고



<그림 7> Villard de Honnecourt, 시토수도회 교회 평면

하였으며, 그 평면은 사실 전체적인 모듈로서 사용된 것은 아일의 한 베이로 부터 발전된 것이다.¹⁹⁾ 여기서 단순 기하학적 형상인 사각형, 입방체, 원 혹은 구는 위의 특성을 공유하는 신성 모델의 요소적인 존재로서 건축물의 형태구성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도상화는 건축적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도상화의 추구에 대한 사고에서도 알베르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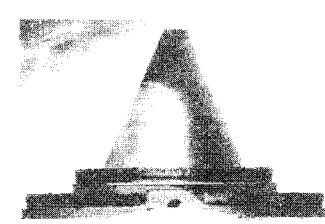
장 ‘완벽한’ 형태들(원과 기본적인 다각형들)이 교회를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공건물들 일반은 자신의 형식적 원리들과 가장 엄밀하게 일치시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의 출발점은 기하학적 완전함이 교회 건물이 나타내어야만 하는 우주적 조화를 반영한다는 생각이다.²⁰⁾ 이러한 근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은 하나의 완결된 인상을 나타내게 되고, 개념에 그 이미지를 대응시키는 상상 작용의 일반적 과정의 표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벤츄리(Robert Venturi)는 “보편성”을 초기 근대건축운동의 핵심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²¹⁾ 이러한 객관성의 추구는 국제주의 양식의 근대건축운동이 보편성을 단순기하학적 형상을 모토로서 전세계적 적용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편성의 원리로서 도상화의 추구는 선에 의한 표현으로서 ‘가축적’ 소묘에서 물체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빌플린(Heinrich Wölfflin)에 의해 좀더 분명해지는데, 그는 이것을 건축물의 형태가 확정되고 견고하며 항구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실재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운동, 즉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 판이한 건축적 인상에서 고전적 건축의 완결된 양태와 후대 건축의 결코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광경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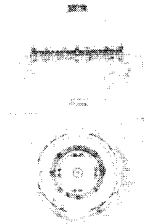
이러한 고전적 양식에서는 고정된 형태가 강조되어 변화하는 것에는 별다른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투시도적 관점에서 하나의 ‘상’²²⁾만 나타나는 집중식 건축물의 형상을 여기에

18) 성, 장원주택(manor house) 혹은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건축물을 위한 출입구(gateway)를 가진 폐쇄할 수(enclosing) 있는 건축물
 19) Krufft,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p.36-38.
 20) Schultz, C. Norberg, *건축론(Intentions in Architecture)*, 정영수역, 세진사, 1992, p.102.
 21) Venturi, Robert, *Diversity, Relevance and Representation in Historicism, or Plus Ça Change...*, AR 1982, June, p. 115.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p.138.재인용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앞서 신성 모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고전적 취향은 항상 명료한 선과 가측적인 윤곽을 선호한다. 평면은 뚜렷한 윤곽, 입체 형태는 가측성을 띠어 이 양식 내에서는 일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파악된다.²³⁾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인 신고전주의적 성향의 사고를 완결짓는 것이 되었으며, 견고하고 항구적인 입체적 형태의 대두와 선, 면, 기하학적 형태 같은 가측적인 요소가 다시금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8>



<그림 8> Boullée, Cenotaph



<그림 9> Sobre, 불멸의 신전

존재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복잡한 형태는 정리되고, 직선과 직각은 다시 적용되었다. 건축은 특성상 구축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러한 단순성의 추구는 당연히 하나로 완결을 하려는 비구축성의 형태로서, 환원하자면 구축적 성향을 지양하는 형태를 특성으로 하게 된다.²⁴⁾ 불레와 르두처럼 소브레(Jean-Nicolas Sobre)는 구체의 가장 비-구축적 형태를 실험한 대담한 사람이었다. 그의 계획안인 '불멸의 신전(Temple of Immortality)'은 반구형의 공중에 뜬 단일의 형태로서 계획되었다<그림 9>.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구형상의 표현을 성취하기 위해 호수에 의해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어 있다. 소브레는 세밀하게 스케치된 디자인으로 표면에 활기를 북돋우고, 적도(equator) 주위의 12궁 일람도(sign of zodiac)와 함께 부조된 벨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예시는 로마에서 보도이어(Antoine Laurent Thomas Vaudoyer)에 의해 계획된 'House of a Cosmopolite' (1785)<그림 10>에서 소브레의 신전에 가까운 것으로, 원형의 아케이드로부터 나타나는 이 구체의 위쪽 반은 별과 함께 장식되어 있다. 르두의 Rural Guards를 위한 웰터와 같이 Vaudoyer는 그의 구체안에 실제적인 오두막을 창조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이 둘 건축가는 내부에 층을 나누고, 층에서 단일 방들을 나누었다.

더욱더 진전된 이론적 전개는 이후 독일의 이론가인 베티셔(Karl

22) 이러한 건축이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고, 건축물을 감상자의 시점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방에서 보아도 다른 시각적 형상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푸코(Michel Foucault)는 벤담(Bentham)의 판옵티콘(panopticon)이라는: 일방 감시시설 혹은 르두의 아르케 스냥 등의 예를 통해 관찰자의 시선을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기에 적합한 단순 기하학적 형상의 원형 건축물들이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Foucault, Michel,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오생근역, 남남출판, 1995, pp.255-302.

23) Wölfflin, Heinrich,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역, 시공사, 1995, pp.98-111.

24) 하인리히 뵐플린은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상계서, pp.210-217.

Boetticher)에 의해 기본(basic) 웨마와 미적(aesthetic) 웨마로 구별하고, 의식적인 분류작업을 하였다. 쟈퍼도 이에 다르지만, 그는 유형학적 개념에 좀더 근접된 것으로,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들의 기본적 웨마는 주로 재료와 필요에 의한 형태와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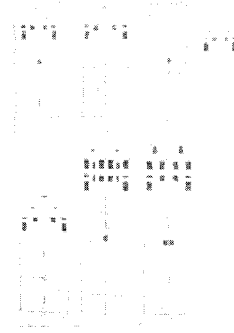


<그림 10> A. L. T. Vaudoyer, House of a Cosmopol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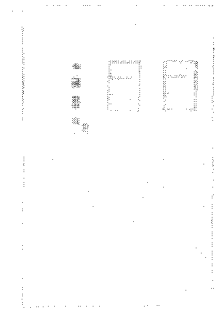
3.3. 유형학의 탐구

보편성 원리로서의 유형학의 탐구는 르네상스 시기 이래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것의 적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되어 건축 형상의 단순화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의 원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이론가인 카타네오(Pietro Cataneo)는 1567년 출간한 저서²⁵⁾에서 고대 신전의 평면에 대한 세밀한 유형학(typology)과 함께 교회에 대한 그의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것의 체계적인 진전은 주택에서 나타나게 된다. 세를리오(Sebastian Serlio)는 그의 Book VI에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주거의 유형을 디자인하였다.<그림 11>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부유한 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낮은 시민계층을 위한 주택 디자인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²⁷⁾ 이후 뮈에트



<그림 11> Sebastiano Serlio, 개인주택의 평면과 입면유형



<그림 12> Pierre Le Muet, 개인주택의 평면과 입면 그리고 단면 디테일, 1681

(Pierre Le Muet, 1591-1669)는 주택건축에서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전되었는데, 폭은 12피트, 길이는 21-25피트에서 101피트의 폭과 45피트의 길이에 이르는 범위까지 개개의 구상(plot)의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모두 주택을 13개의 유형으로 발전시켰고, 각각의 평면은 5개의 변형안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2>.²⁸⁾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혁신적으로 것으로서, 이후 일련의 이론적 전개에 큰

25) Pietro Cataneo, I quattro primi libri di architettura, 1567.

26) Kruft, Hanno Walter, 전계서, p.80.

27) 상계서, p.78.

28) 상계서, pp.124-125.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울름(Ulm)의 상인이면서 도시건축가인 푸르텐바흐(Joseph Furttenbach, 1591-1667)는 일련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건축(Architectura universalis, 1635)인데, 여기서 그는 일종의 여러 가지 건축 유형들에 의한, 모든 방의 오브제들이 세밀하게 정의된 3개 층의 '시민(burgher) 주택'을 발전시켰다<그림 13>.²⁹⁾ 또 다른 예로서 폴 데커(Paul Decker, 1677-1713)의 저서³⁰⁾는 주로 다빌리에(Augustin-Charles d'Aviler)와 스투름(Leonhard Christoph Sturm)에 기초한 것으로, 주로 건축적 부재(members)와 장식 그리고 건축물의 다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진 앞의 두 부분에 비해, 세 번째는 건축물 유형(type)의 체계적인 처리의 초기(beginnings)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14>.³¹⁾ 그러나 이것은 초기 유형학의 개념으로서 혼돈된 상태로 나타나지만, 개념과 이론의 설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림 13> Joseph Furttenbach, 3개 층의 시민주택의 평면, 1635

<그림 14> Paul Decker, 시민주택의 평면, 입면 그리고 단면, 1719-20.

유형학의 탐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은 밀리자(F. Milizia)에 의해 전개된다. 건축물에 대한 밀리자의 유형학은 완벽하게 사고의 이질적(heterogenous) 경향을 포함하여, 그의 이념의 장후로서 나타나고 있다. 밀리자는 건축물 유형을 그들의 성격(carattere)에 따라 분류하였다. 18세기에 유행하는 성격이론과 연관성을 지니면서, 프랑스 건축이론의 중심적 개념의 적용을 보여준다. 프랑스 혁명적 건축가의 디자인에 밀리자의 친밀함은 여러 가지 평면 유형을 수용하기 위한 그의 의향을 나타낸다.³²⁾ 롱들레(Rondelet)는 유형을 건조에 따른 형태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언급할 쥘페(G. Semper)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개념들의 통합은 역시 카뜨르메르 드 퀴시(Quatremère de Quincy)에 의해 발전된다.

언어학적 관점과 기원이론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퀴시는 유형을 세 가지 타입 즉 종종 그리고 체계적인 것으로서, 좀더 정확하게 오두막(the hut), 천막(the tent), 그리고 동굴(the cave)를 사회적 인식

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 중요한 성격에 대한 것 그리고 요소의 조합으로부터 결과된 건축 생산물의 전형(mode)을 위해서 참조하게 되었다.³³⁾ 그는 유형은 자연의 힘에 의한 자의적 결과가 아니라, 조화(correspondence)가 오로지 신성한 조정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로, 일원발생설(monogenesis)과 신의 계획의 보편성을 위한 주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퀴시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 건축에서 역사적 연속성의 추상적 인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타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형학의 탐구의 결실로서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패턴북(pattern-book)으로서의 저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예시들은 그 당시의 유행적인 경향이었다. 첫 번째는 라이톨러(Thomas Lightoler)의 저서³⁴⁾에서 농가주택(Farmhouse)의 기본적인 입면 형성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관리인의 집(keeper's house)에서 고딕적인 형상을 한 주택과 당시의 오리엔탈리즘적 성향에서의 중국풍 주택에 대한 유형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종 형상의 패턴에서 환상적인 명료한 파사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5>³⁵⁾ 두 번째는 뉴포르게(Jean-François de Neufforge)의 저서³⁶⁾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이용하였다. 뉴포르게는 르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매우 평범한 것인 극도의 단순한 패턴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유별난 형상을 한 여러 평면들은 로지에의 제안에 의해 영감을



<그림 15> Thomas Lightoler, 농가주택, 관리인의 집, 중국풍의 주택(왼쪽부터), 1762.

받은 것 같다.

특이하게 불균형화로서의 유형은 뉴포르게에게는 인위적인 효과의 합리적인 의미였다. 이러한 유형의 전체적인 인상은 지나친 크기나 무게에 의해 흥미를 얻는다. 높은 오벨리스크나 피라미드는 시문(city gates), 채플 혹은 도시 주택 위에 높이 솟아있고<그림 16a>, 감옥 위에 있는 피라미드<그림 16b>는 거의 건축물 자체와 같은 높이로서, 그 베이스의 폭은 포티코의 폭과 동일하다. 원형의 돌을 새김(medallions), 그리고 구조물 위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그리고 측면의 문 등이 모티브들이 교대로 묘지의 출입구에서 나타난다<그림 16c, 16d>.³⁷⁾ 여러 종류의 용도에서 입면 형상의 동일한 패턴을 적용한 유형학적 탐구로서, 이 시기의 다른 경향들은 뉴포르게의 새로

29)상계서, pp.172-173.

30)Paul Decker, Ausführliche Anleitung zur Civilbaukunst(Through introduction to domestic architecture)

31)Kruft, Hanno-Walter, 전계서, p.180.

32)상계서, pp.203-206.

33)Lavin, Sylvia, 전계서,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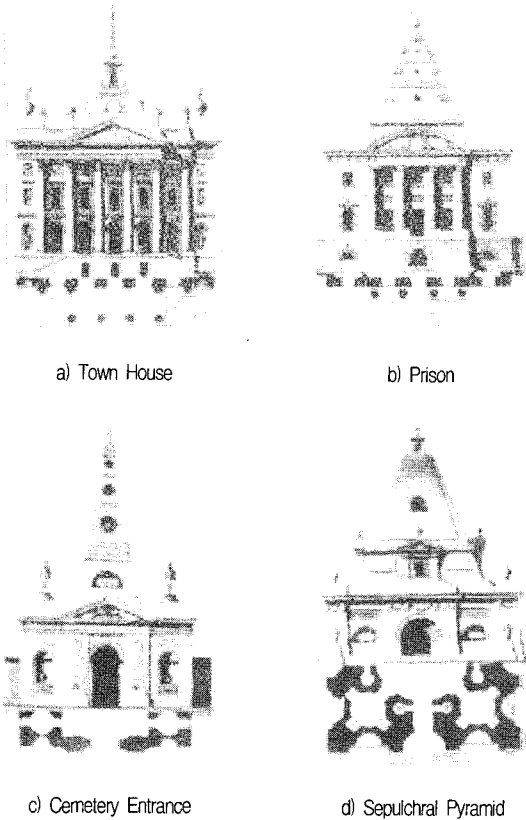
34)Lightoler, Thomas, The Gentleman and Farmer's Architect

35)Kaufmann, E., 전계서, p.28.

36)Neufforge, Jean François de, Recueil élémentaire d'architecture, 1757-80. 10 volume으로 된 패턴북

37)Kaufmann, E., 전계서, p.153.

은 패턴의 발견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퀴시의 기원 이론과 관계된 이집트 고고학적 영향을 형태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 Jean-François de Neufforge, Recueil élémentaire d'architecture, 1757-80.

건조에 의한 유형의 설정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쟈퍼에게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쟈퍼에 의하면 유형은 '필요에 의해 규정된 원초적 형태(original forms prescribed by need)'로서 정의된다. 이것은 그의 4가지 기본적 요소-벽난로(Hearth), 지붕(Roof), 위요(Enclosure), 토대(Substructure)-와 동일시하는데, 이 4가지 요소는 그에 따른 4가지의 재료들과 기본적인 기술들까지 유도된다.³⁸⁾ 이것은 너무 편협된 나머지 한정된 원리로서 나타나고 현재와 같은 많은 다양한 재료에 대한 적응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결론

일반적으로 형태구성은 보편성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형태의 단순화, 일반화의 형식으로서 보편성의 의미는 사고의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적 사고에서, 구성과 미의 질적 향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성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보편성일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의 원리에서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 세 가지 특성들은 건축 작품들에서 단일의 원리로서 보다는, 앞에서 이해된 바와 같이 서로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으로서, 신성화의 추구이다. 이것은 중세시기 이후로 역사적 전통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의 수치적 질서나 르네상스의 인체의 비례의 우주론적 적용을 통하여 형태의 명료성을 가지게 되고, 중심성과 균계에 의한 통일성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 특성으로서, 도상화의 추구이다. 이것 역시 중세이후로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으로서, 형태이미지의 단순화를 통한 순수함과 단순기하학적 특성을 추구하고 있다. 선적인 특성과 함께 형태 한계의 명료함, 비구축적 성격 등에 의한 신고전주의적 전통으로 연계되고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유형화의 추구이다. 건축이론의 역사에서 형태구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형은 바로 형상의 추상화에 따른 패턴화로서 나타나는데, 퀴시의 경우는 18세기의 성격이론이나 혹은 고고학 등의 관심을 통한 기원이론과 연관성을 통한 유형의 개념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기의 원초적 형식에 대한 탐구를 건축형태의 재현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2. 井上充大, 건축미론, 임영배의 1역, 도서출판 국제, 1994.
3. Clement, Elisabeth의 3, 철학사전, 이정우역, 도서출판 동녘, 1996.
4. Eliade, M., 상징, 신성, 예술(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역, 서광사, 1991.
5. Gombrich, E. H., 예술과 환영(Art and Illusion), 백기수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6. Rowe, Colin, 근대건축본질(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윤재희 외 1역, 세진사, 1992.
7. Schultz, C. Norberg, 건축론(Intentions in Architecture), 정영수역, 세진사, 1992.
8. Tzonis, Alexander, 건축적 사고의 구조(Toward a New Oppressive Environment), 이강현역, 태림문화사, 1993.
9. Wittkower, Rudolf, 르네상스건축의 원리(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이대암 역, 대우출판사, 1997.
10. Wölfflin, Heinrich,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역, 시공사, 1995.
11. Alberti, Leon Battista,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Joseph Rykwert의 2 translated, The MIT press, 1989.
12. Holt, Elizabeth Gilmore ed., A Documentary History of Art Vol. I,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3. Kaufmann, E.,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lishers, 1955.
14. Kruff, Hanno 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15. Lavin, Sylvia, Quatremère de Quincy and the Invention of a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2.
16. Panofsky, Erwin, Meaning in the Visual Arts: The History of the Theory of Human Proportions as a Reflection of the History of Styles, The Overlook Press, 1974.
17. Simson, Otto von, The Gothic Cathedral: Origins of Gothic Architecture & the Medieval Concept of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접수 : 1998. 8. 10>

38) Kruff, Hanno Walter, 전제서, pp.313 314.